

# 성경해석학

제 5 강

의미의 복잡성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http://www.thirdmill.org).

# 성경해석학

## 제 5 강 의미의 복합성

### 목차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문자적 의미(Literal Sense)</b> .....	<b>1</b>
A. 다양한 의미들(Multiple Meanings)	3
B. 유일한 의미(Singular Meaning)	8
<b>III. 총만한 의미(Full Value)</b> .....	<b>12</b>
A.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3
B. 성경의 상술(Biblical Elaborations)	15
C. 정당한 적용(Legitimate Applications)	21
<b>IV. 결론(Conclusion)</b> .....	<b>25</b>

# 성경해석학

##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 제 5 강 의미의 복잡성(The Complexity of Meaning)<sup>1</sup>

#### I. 서론(INTRODUCTION)

성경 해석학에 대한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그것은 "의미는 하나이지만 그 의미의 적용은 다양하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성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간단하고 직설적인 가르침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웃을 대할 때 이 가르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모든 성경 구절의 의미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는 하나이지만 적용은 다양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의미는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의미에 대한 많은 부분적인 요약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적용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모든 성경 구절이 갖는 그 하나의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해석학** 강좌의 다섯 번째 강의이다. 이번 강의의 제목을 "의미의 복잡성"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성경 구절들에 다양한 유형의 의미와 다양한 수의 의미를 부여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

<sup>1</sup>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성경에 담긴 의미의 복합성에 대한 논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해석자들이 흔히 성경의 "문자적 의미"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는 본문의 총명한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 II. 문자적 의미(LITERAL SENSE)

라틴어 표현인 센수스 리터랄리스(*sensus literalis*)에 해당하는 "문자적 의미"라는 용어는 우리 시대에 "문자적 해석"이라는 용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문자적 해석"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경직되거나 기계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문자적 의미"라는 용어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 또는 "문법적-역사적 의미"라고 부르는 것과 훨씬 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자적 의미는 저자의 의도와 원래 청중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성경의 단어와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다양한 장르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은유, 직유, 유추, 과장법과 같은 비유법을 인정한다. 그것은 역사를 역사로, 시를 시로, 격언을 격언으로 받아들인다.

(브랜든 크로우[Brandon Crowe] 박사)<sup>2</sup>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으며, 우리가 성경책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장르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책들의 장르를 이해하고 장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경책들 자체가 그 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게 해야 한다.

한 성경 구절의 문자적 의미가 단순히 페이지에 쓰여진 단어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구절의 문자적 의미(*sensus literalis*)가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저자의 의도는 다면적이다. 장르적 고려 사항은 구절의 의미를 복잡하게 만든다. 비유법과 같은 것들도

---

<sup>2</sup> Dr. Brandon D. Crowe is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도입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복합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많은 선의의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의미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었다.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 또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가 너무 복합적이므로 문자적 의미라는 제목 아래 충분히 요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다. 따라서 강의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자적 의미”라는 용어의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문자적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때 성경의 복합적인 의미를 조사하고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담긴 의미의 복합성이 어떻게 문자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지 말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문자적 의미는 성경의 다양한 의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문자적 의미가 성경의 유일한 의미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문자적 의미는 성경의 여러 의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자.

### **A. 다양한 의미들(MULTIPLE MEANINGS)**

초대 교회에서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주로 해석학에 대한 풍유적(알레고리적, 우화적) 접근법에서 비롯되었다. 풍유적 접근법은 성경에 묘사된 역사적 인물, 장소, 사물, 사건을 마치 영적 진리에 대한 상징이나 은유인 것처럼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다. 나무는 왕국을 상징할 수 있고, 전쟁은 죄와의 내적 투쟁을 상징할 수 있다. 풍유적 해석에서는 성경에 묘사된 물리적 현실이 종종 경시되고 심지어 중요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무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현실이 상징하는 영적 개념들은 성경의 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의 풍유적 접근법은 때때로 그 기원을 주전 20 년경부터 서기 50 년경까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 필로에게서 찾는다. 필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더 높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풍유로 봄으로써 기독교인들의 풍유적 접근의 기초를 놓았다.

필로 이후 초대 교회의 몇 세기 동안 주요 기독교 학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특히 신학생들에게 신학과 성경 해석을 가르쳤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 교리 학교의 가장 유명한 교사들 중 한 사람은 주후 185 년부터 약 254 년까지 살았던 오리겐이었다. 오리겐은 성경의 의미를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 장 6 절에서 율법의 문자와 율법의 정신을 구별한 것에 착안하여, 오리겐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본문의 문자와 본문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리겐에 의하면, 본문의 “문자”는 문법적 문맥에서 단어가 지닌 단순한 의미를 가리켰고, 본문의 “영”은 단어 자체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비유적 의미를 가리켰다. 오리겐은 본문의 문자를 문자적 의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문자적 의미의 권위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오리겐은 성숙하고 영적인 신자들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오리겐은 **제 1 원리에 관하여**(*On First Principles*) 4 권 1 장 16 절에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오리겐의 풍유적 방법은 교회사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접근법은 초기 기독교 해석학의 방향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쳤다.

(크레이그 키너[Craig S. Keener] 박사)<sup>3</sup>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일부 고대의 해석가들은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 내러티브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러티브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를 읽는 방식은 내러티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내러티브에서 교훈이나 도덕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리겐과 같은 해석가들은 성경 본문을 풍유화하여 일련의 상징으로 바꾸는 경향이

---

<sup>3</sup> Dr. Craig S. Keener is the F.M. and Ada Thompson Chair of Biblical Studies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론의 위험성은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이런 방법은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대 신화, 곧 고대 신화의 당혹스러운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풍유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종종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에 접근했던 것과 거의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문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읽음으로써 본문이 더 많은 영감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리겐조차도 때때로 정말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오리겐이 성경에 대해 영적으로 혹은 풍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신플라톤주의가 초대 교회에 미친 영향을 반영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순수한 천상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결과로 성경은 실제로 물질 세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경이 역사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일을 언급할 때 실제로는 풍유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더 큰 영적 진리에 있었고,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최고 목표였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구약 성경은 우주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어진 지상의 축복,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육적으로 구출된 것,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상 왕국이 세워지는 것 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삶에서 일어난 물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역사의 물리적 측면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신플라톤 철학을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풍유적 해석학파에 호소했다. 그들의 해석학적 접근은 성경에 기록된 물리적 현실을 경시했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치려던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찾도록 장려했다.

성경의 영적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되고 분류되었다. 한 가지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로마 전차를 가리키는 라틴어인 쿼드리가(Quadriga)로 알려져 있다. 쿼드리가의 이미지가 성경에 적용된 것은 성경에 네 가지 뚜렷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서기 360 년에서 435 년경에 살았던 존 카시안은 그의 저서 **회의**(*Conferences*, conference 14, chapter 8 = 14 회의, 8 장)에서 이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카시안은 오리겐이 말한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의 기본적인 구분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나아가 세 가지 종류의 영적 의미를 식별했다. 첫째로, 풍유적(allegorical) 의미는 구절의 교리적 가르침이다. 둘째로, 비유적(tropological) 의미는 구절의 도덕적 가르침이다. 셋째로, 신비적(anagogical) 의미는 구절의 천국과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를 들어, 쿼드리가에 따르면, 성경 구절에서 "예루살렘"이 언급될 때 이 지명은 네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문자적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대 수도이다. 둘째로, 풍유적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가리킨다. 셋째로, 비유적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신실한 신자 혹은 인간 영혼의 도덕적 자질일 수 있다. 넷째로, 신비적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 구절의 영적 의미들과 문자적 의미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의미가 문자적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본문의 각 의미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자적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숨겨진 영적 의미들에 호소했다.

한 가지 예로, 1090 년부터 1153 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들을 분리하는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한 성경 해석을 장려했다. 예를 들어, 아가서에 대한 그의 해석은 본문의 문자적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아가서 1 장 17 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들어 보라.

(아 1:17 새번역)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서까래는 전나무라오.

이 구절을 역사적 맥락에서 읽으면 그것이 솔로몬의 실제 궁전에 대한 묘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왕궁의 경이로움에 주목함으로써 왕을 높였다.

그러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 구절의 문자적, 문법적-역사적 의미가 그의 해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실제로 영적 실재를 상징했다. 집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다. 그리고 집의 들보와 서까래는 교회 당국에 해당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구절이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베르나르가 이 구절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한 영적 의미들은 그것의 문자적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 문자적 의미와 일치하지도 않았다.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sup>4</sup> 마틴 루터는 창세기 강의에서 이 풍유적 해석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풍유적 해석이란 저자가 의도한 풍유가 아니라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문을 가져와서 풍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그의 더 젊은 시절에 자기 역시 이것을 꽤 잘했고 그로 인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칼빈도 이런 풍유화에 대해 말하면서 성경에 밀랍 코를 씌운 것과 같아서 저자에 충실하기보다 해석자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나는 정말로 교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루터도 교부들을 비판하면서도 분명히 그들의 작품을 읽었다. 교부들이 종종 부당하게 참된 교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본문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부들로부터 배우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어떻게 구약성경을 해석하여 그것을 기독교인들과 관련이

---

<sup>4</sup> **Dr. Robert L. Plummer**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있게 할 것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때때로 그들은 그 과정에서 종종 길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교회사 전반에 걸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충실한 해석의 사례들도 많이 있다.

성경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현대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 소통하도록 설계하셨다고 주장하는 대신, 성경의 다양한 의미가 언어 자체의 내재적 모호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언어가 너무 모호해서 결코 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경 구절의 의미에 대한 어렵פות한 한계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는 성경의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검증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은 이런 의미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의미라고 판단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가 성경의 다양한 의미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온 사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문자적 의미가 성경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 **B. 유일한 의미(SINGULAR MEANING)**

1225 년부터 1274 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쿼드리가(Quadrige)에 대한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옹호했다. 그의 많은 전임자들과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가 다른 모든 의미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의 제 1 부, 제 1 문, 제 10 조에서 그는 모든 정당한 영적 해석은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믿음에 필요한 어떤 것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가르쳐지지 않고는 영적인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모든 학자들이 아퀴나스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러한 원칙을 따랐었다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적으로 성경 구절의 모든 의미는 문자적 의미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영적 의미를 고정시키려는 아퀴나스의 노력은 우리 대부분에게 상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구절들의 문자적 의미와 동떨어진 영적 해석들이 중세 교회의 많은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교회 당국자들은 그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는 무관한 영적 의미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4 세기에서 17 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는 성경 해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무대를 마련했다. 간단히 말해서, 르네상스 학자들은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고전들을 원어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본문들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권위와는 별개로 이러한 본문들을 해석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경에도 적용되었다. 이 해석 전략은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시했으며, 이 문자적 의미, 곧 원래 의미의 중심성과 권위를 강조했다.

(제임스 스미스[James D. Smith III] 박사)<sup>5</sup> 중세 교회 시대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는 4 중적인 접근, 곧 문자적 접근, 신비적 접근, 풍유적 접근, 도덕적 접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래서 16 세기의 종교개혁자들—우리 대부분이 개신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부 이론적으로, 그러나 특별히 4 중적 접근의 결과로 나오는 것 때문에, 4 중적 접근에 반대했다. 그들은 4 중적 접근을 통해 나온 가르침의 전통에는 성경의 변질로 생각되거나 교회 권위를 편들며 성경의 원래의 의도 곧 저자의 의도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

<sup>5</sup> **Dr. James D. Smith III** is Associate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t Bethel Seminary, San Diego, and Adjunct Professor of Religion at the University of San Diego.

(브루스 보거스[Bruce Baugus] 박사)<sup>6</sup> 쿼드리가, 즉 성경의 네 가지 의미는 기독교 교회 내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가들은 일부 카톨릭 교부들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해 공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오직 하나의 의미나 뜻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윌리엄 휘태커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쿼드리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네 가지 의미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성경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의미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의 모음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들이 그 한 가지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는 데 적절한 종류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쿼드리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쿼드리가를 개선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노선을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세 가지 의미도 포함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개신교도들은 아퀴나스가 옹호했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영적 의미가 단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저자가 원래 청중을 위해 의도한 본문의 모든 영적 측면들은 사실 본문의 문자적 의미의 측면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 즉 원래의 의미가 유일하면서도 복합적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르네상스 개신교들이 "문자적(literal)"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넓혀서 저자가 성경의 "문학(literature)"이 전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율리히 츠빙글리,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주요 인물들은 문자적 의미, 곧 원래의 의미에 대하여

---

<sup>6</sup> **Dr. Bruce Baugus** is Associate Professor of Philosophy and Theology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각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문자적 의미를 역사적, 교리적, 도덕적, 종말론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보았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대한 개신교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잘라낸 보석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잘라낸 보석들은 여러 "면" 또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기여하는 여러 작은 의미들이 있는 것을 잘 예시한다. 성경의 각 구절은 저자가 역사적 사실, 교리, 도덕적 의무, 구원과 종말론 등에 관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보석의 각 면은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별개의 표면이지만, 어느 한 면이라도 전체 보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에는 문자적 의미의 뜻에 기여하는 별개의 측면들이 있지만, 이러한 작은 측면 중 어느 것도 전체 문자적 의미라고 주장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의미는 다면적이다. 각 구절의 의미에는 우리가 문자적 의미라고 부르는 유일하고 통일된 의미에 기여하는 많은 작은 부분들이나 측면들이 있다.

(대럴 북[Darrell L. Bock] 박사)<sup>7</sup> 성경은 풍성한 책이다. 성경은 깊은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the mind of God)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은 매우 광대하고 표현되는 사상들도 방대하며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따라서 성경의 해석들을 평가하는 것은 앉아서 이 각도가 본문을 읽는 적절한 방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문제이다. ...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다양성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선택할 해석들의 적절성의 측면을 고려한 다음에 의미는 실제로 복합적이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초기 이해나 여러분의 초기 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줄

---

<sup>7</sup> **Dr. Darrell L. Bock** is Executive Director of Cultural Engagement and Senior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Studies at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석은 실제로 풍부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문 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상당한 분량의 성경의 모든 구절은 신학과 기독교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온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풍성함에 대한 가장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은 성경의 구절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고대 세계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설정된 문법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하나님과 그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들이 성경의 원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복합적인 의미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의 의미의 복합성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개신교도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의 중요성과 범위를 강력하게 시인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성경 단락의 총만한 의미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 III. 총만한 의미(FULL VALUE)

복음주의자들은 때때로 성경의 "총만한 의미"를 뜻하는 **센수스 플레니오르**(sensus plenio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성경 단락의 문자적 의미 곧 원래의 의미의 중요성을 시인하지만, 성경의 뒷부분이 성경의 앞부분에 대하여 문자적 의미 곧 원래의 의미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적할 때 특히 그렇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그들은 결코 그 원래의 의미를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원래의 의미에만 자신들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 대해 더 온전한 의미, 즉 총만한 의미를 식별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의 "총만한 의미" 또는 "온전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총만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본문의 충만한 의미(full value)란 원래의 의미와 모든 성경적 상술(詳述)과 모든 정당한 적용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전체적인 뜻(total significance)이다.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이고 본문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다. 성경의 상술(elaborations, 詳述/詳說/詳論)은 성경의 한 부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당한 적용(legitimate application)은 성경이 독자의 삶에 주는 함의를 말한다.

성경의 충만한 의미에 대한 이 정의에 따라 우리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원래 의미의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상술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정당하게 적용되는지 탐구할 것이다.

## A.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원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원래의 의미란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공동으로 그 본문이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들과 행위들과 감정들이다.

앞서 말했듯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그것의 문자적 의미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의 의미는 다면적이다. 성경은 다양한 수준에서 최초의 청중과 소통해야 했다. 성경은 개념들, 곧 원래 청중이 본문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했던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성경은 행동들, 곧 본문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지 않은 행위들을 전달한다. 성경은 감정들, 곧 본문에서 전달되거나 표현된 태도와 기분을 전달한다.

우리는 출 20:13 을 살펴봄으로써 본문이 어떻게 개념들과 행위들과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출 20:13 은 다음과 같다.

**(출 20:13 개역개정)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하여 원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공동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들과 행위들과 감정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개념과 관련하여 이 구절은 인간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암시적으로 이 구절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 구절이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로, 행동과 관련하여 이 계명은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들에 대한 기록의 일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백성, 즉 출애굽기의 원래 청중이 살인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음을 나타낸다. 셋째로, 감정과 관련하여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미워하시며 정의를 옹호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살인을 금하는 계명의 원래 의미는 다면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명백한 개념과 행동과 감정을 원래 청중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 자신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이 무엇인지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총명한 의미를 얻으려면 원래 의미의 복합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 복합성을 무시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sup>8</sup> 종교개혁자들은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개발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본문이 문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본문이 처음에 무엇을 말했는지를 묻는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은 말하자면 매개 변수를 제공한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타당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개 변수 안에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발휘해야 한다. 만일 그런 해석들 중

---

<sup>8</sup>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하나가 실제로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즉 그 배경에서는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면, 그 해석은 무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매개 변수 내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캐리 빈잔트[Carey Vinzant] 박사)<sup>9</sup> 성경은 정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독법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옳다. 다시 한번 이것은 예를 들어 신조에 명시된 주요 주제들이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신앙의 규칙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을 방지한다. ...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 해석자와 대화할 때 오만하고 교조적인 정신으로 대화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래의 의미가 성경의 총만한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상술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 **B. 성경의 상술(BIBLICAL ELABORATIONS)**

성경의 상술(詳述, 詳說/詳論)이란

성경의 한 부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술들(elaborations)은 항상 원래의 의미와 일치하고 원래의 의미를 확인시켜 준다. 어떤 경우에 성경의 상술은 원래 의미의 한 측면을 그대로 언급하는 반복(repetition)일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 성경의 상술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거나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설명(clarification)일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 성경의 상술은 특정 구절의 의미를 넓혀주는

---

<sup>9</sup> Dr. Carey Vinzant is Assistant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t Wesley Biblical Seminary.

확장(extension)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금하는 계명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계명은 처음으로 출애굽기 20 장 13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출 20:13 개역개정)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상술은 일차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 이 계명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오는 반복(repetition)이다. 신명기 5 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이다. 신 5:17 은 출 20:13 과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

**(신 5:17 개역개정) 살인하지 말지니라<sup>10</sup>**

이 반복은 그 계명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조건을 상기시켜 주었다. 물론 상술이 반복의 형태로 진술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말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상술은 맥락상 항상 그것의 의미에 무언가를 추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술이 형식상 반복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나열한 두 번째 유형의 상술은 설명(clarification)이었다. 우리는 민수기 35 장에서 살인을 금하는 계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주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민수기 35 장에서 모세는 불법적인 살인(고살 故殺, 모살 謀殺)과 우발적인 살인(오살 誤殺)을 구별했다. 모세가 민 35:20-25 에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라.

**(민 35:20-25)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

<sup>10</sup> [역자 주] 원문이 똑같은 출 20:13 과 신 5:17 에 대하여 개역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통일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통일하여 번역하지만 명령형을 쓰지 않고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똑같은 원문을 "살인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지니라"로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우리말성경도 "살인하지 마라"와 "살인하지 말라"로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쉬운성경도 "사람을 죽이지 마라"와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로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설명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을 죽인 모든 부당한 사례가 이 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아니라는 것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불법적인 살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살인에 “사전 악의”가 포함될 때, 곧 살인이 의도적이고 악의에 의한 것일 때, 살인 금지 계명은 가혹한 형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살인이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경우 살인 금지 계명은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가 나열한 세 번째 유형의 성경 상술은 확장(extension)이었다. 성경은 이 확장을 통해 단락이나 그것이 언급하는 주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마태복음 5 장에서 살인을 금하는 계명에 대한 확장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랍비들이 살인 금지 계명의 범위를 잘못 제한한 것을 비판하셨다. 마 5:21-22 에서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들어보라.

(마 5:21-22 개역개정)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확장하시며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적용하셨다.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에 따르면 불의한 분노는 살인처럼 동일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분노는 살인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동일한 측면을 불쾌하게 한다.

(브라이언 비커스[Brian J. Vickers] 박사)<sup>11</sup> 물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많은 명령을 인용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너희가 살인을 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계명들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내가 살인한 적이 없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살인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속의 의도, 즉 증오에 관한 것이다.

(크레이그 키너[Craig S. Keener] 박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출애굽기 배후에 있는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핵심을 찾으신다. 그분은 원리를 찾으신다. 그 원리는 바로 문화를 초월하며 우리로

---

<sup>11</sup> **Dr. Brian J. Vickers**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Assistant Editor of The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초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과 다른 교사들은 성경을 언급할 때 보통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 5:21-22 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들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대인 교사들이 기록된 것에 관하여 말했었던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통속적인 해석들을 반박하고 계셨다.

이 상술은 분명하게 해주는 설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계명의 원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그것은 그 계명 자체의 어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의 계시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그 계명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른 구절들로부터 그 계명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살인을 금하는 계명이 항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과 그 원래의 의미가 단순한 살인 금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가이 워터스[Guy Waters] 박사)<sup>12</sup>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살인을 분명히 금지하셨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명령을 언급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죄”라고 부르는 증오와 분노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수님은 그 원래의 계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무효화하시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에 주어진 계명이 외부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출애굽기 계명에 완전히 새로운 것, 예측되지 않았고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시며 율법을 내면화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

<sup>12</sup> Dr. Guy Waters is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아니라 이미 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계명은 마음과 마음의 죄를 다루는 계명이다. 나는 그 계명을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들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기저에 있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죄, 마음의 태도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일은 역사의 흐름,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그 명령들을 읽어온 역사의 과정에서 들어오게 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시며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율법의 온전한 의도를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주시고 율법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성경이 그 자체에 대해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자주 모세의 율법을 다시 언급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거의 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성경의 상술은 반복을 통해, 설명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원래 의미의 확장을 통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시인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 아래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성경이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경의 충만한 의미에 대한 우리의 논의 가운데 성경의 원래 의미와 성경의 상술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정당한 적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C. 정당한 적용(LEGITIMATE APPLICATIONS)

우리는 정당한 적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정당한 적용이란 한 구절의 원래 의미와 성경적 상술이 청중에게 주어야 하는 개념적, 행동적, 감정적 영향이다.

원래의 의미와 성경의 상술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정당한 적용은 성경의 원래 의미와 상술에서 이끌어 내야 하고 그것들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수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적용은 항상 수정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용이 성경에 충실한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 의도하신 사용의 일부이며, 따라서 성경의 충만한 의미의 일부이다.

개신교의 유명한 성경 교리 요약서인 1689 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1 장 10 절에 이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을 결정하고, 공회의 모든 법령과 고대 저술가의 의견들과 인간의 교리들과 개인의 영들을 검토하며, 그 판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령에 의해 전달된 성경일 수밖에 없다.

개신교 교회는 거의 보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권위는 합법적이지만 결코 진리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적용을 성경처럼 무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구엘 누네즈[Miguel Nunez] 박사)<sup>13</sup> 우리가 설교할 때 강해(공 설명, 해설)와 적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이어야 하고, 본문의 의미는 하나이어야 하며, 수세기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나중에,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보게

---

<sup>13</sup> **Dr. Miguel Nunez** is Senior Pastor of th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i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되면, 어제의 적용과 오늘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준의 변형이 아니고, 단순한 적용의 차이일 뿐이다.

(태드 제임스[Thad James, Jr.] 목사)<sup>14</sup>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 하나의 해석에서 여러 가지 적용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적용은 그 해석에 맞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석의하고(exgete), 특정 단락이나 특정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된 의미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의견, 우리 자신의 해석, 우리 자신의 생각을 특정 단락이나 특정 구절이 의미하는 것에 가져오거나 집어넣는 이석(移釋, 자의적 해석 eisegesis)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매우 잘못된 적용들을 얻게 되며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은 적용과 맞아야 하고, 적용은 해석과 맞아야 한다.

정당한 적용들이 성경의 총만한 의미의 일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으로 대표되는 또 하나의 개신교 전통에서 살인을 금한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자. 이 교리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유용한 요약을 제공하기 위해 16 세기 유럽에서 작성되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05 번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 6 계명에 들어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생각으로나 나의 말로나 나의 제스처로나 심지어 나의 행동으로 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나의 이웃을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고, 또한 고의적으로 내 자신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

<sup>14</sup> Rev. Thad James, Jr. is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살인 금지 계명을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로마서 12 장에 나오는 바울의 복수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상술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간단한 계명의 충만한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면적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이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작성자들은 살인 금지 계명을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증오와 모욕 등 정도는 다르지만 실제 살인과 유사한 모든 행위에도 정당하게 적용했다. 이와 같은 적용은 살인 금지의 원래 의미와 성경적 상술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의 상황에도 적절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런 적용은 살인 금지 계명의 충만한 의미의 일부이다.

(시몬 비버트[Simon Vibert] 박사)<sup>15</sup>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 금지 계명이 말하는 전부라고 추론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분노와 불만이 그 특정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임을 똑바로 보도록 우리를 깨우치셨다. 따라서 오늘날에 그것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이고, 또한 십계명은 정욕이나 분노나 다른 감정이나 다른 열정이든 우리의 생각을 작아 보이는 행동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 차원의 문제로 그것들을 다루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훨씬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문제의 싹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을

---

<sup>15</sup> **Dr. Simon Vibert** is the former Vicar of St. Luke's Church, Wimbledon Park, UK, and is presently the Vice Principal of Wycliffe Hall, Oxford, and Director of the School of Preaching.

말하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썩 수준  
수준의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하다.

(브랜든 크로우[Brandon Crowe] 박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명령들을 취하여, 말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율법의 참된 의도를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말,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이 바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와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이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율법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더 깊은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율법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 것과 긍정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일을 장려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시며 실제로 두 가지 일로 요약하신다. 그 두 가지 일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살인 금지와 관련된 온갖 문제들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낙태, 안락사, 자살, 전쟁, 극심한 빈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수많은 위협들을 다루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살인을 금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로서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그러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 **IV. 결론(CONCLUSION)**

의미의 복합성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유일한 문법적-역사적 의미로 보는 역사에 대해 논의했고, 성경 본문의 총만한 의미를 그것의 원래의 의미, 성경적 상술, 그리고 정당한 적용의 관점에서 묘사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경 단락에는 하나의 복합적인 원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원래 청중의 개념, 행동, 감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이 복합적인 원래 의미에 대해 부분적으로 요약하는 것들도 많다. 원래의 의미는 우리의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완벽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경의 총만한 의미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상술들에서 지침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정당한 적용들도 해야 한다.